

## 국내경기는 3개월 만에 개선

~ 관광산업이 오름세, 향후는 임금인상과 환율의 동향이 포커스로 ~

(조사대상 2만 6,935사, 유효회답 1만 1,268사, 회답율 41.8%, 조사개시 2002년 5월)

### 조사결과의 포인트

- 2024년 3월의 경기 DI는 전월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4.4로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금융정책 정상화가 스타트한 가운데, 호조인 관광산업 및 인바운드 소비의 확대 등이 호재가 되어 3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향후의 경기는 금리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가운데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인바운드 수요 외에 봄방학을 맞아 개인 소비 관련 업종이 상향하여 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지역별로는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1개 지역이 악화되었다. 노토반도지진의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행·관광산업은 호조였다. 한편 피해지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지연이나 봄 상품 수요 연기는 하락세 요인이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중소기업」「소규모기업」이 5개월 만에 모두 개선되었다.
- 테이코쿠데이터뱅크가 시산(試算)한 임금인상율은 평균 4.16%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인상이 기대되나 기업으로부터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인상에 대하여 어려운 목소리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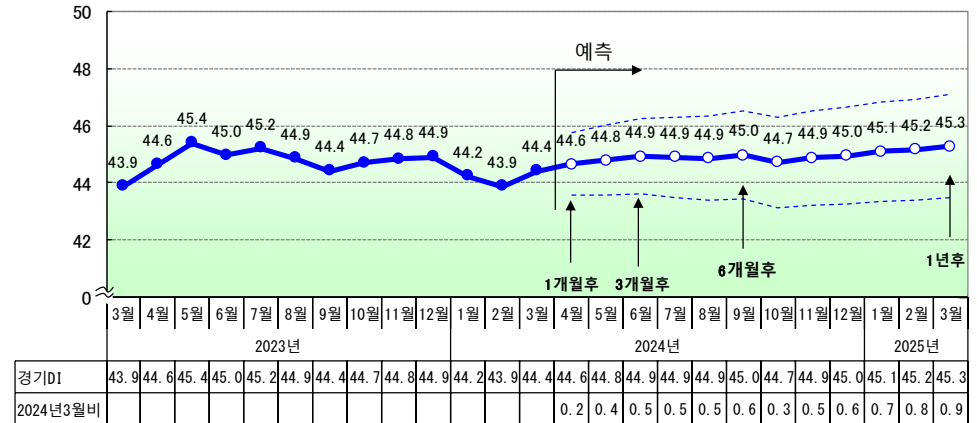
### < 2024년 3월의 동향 : 상황 >

2024년 3월의 경기 DI는 전월대비 0.5포인트 증가한 44.4로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국내경기는 금융정책 정상화가 스타트한 가운데, 호조인 관광산업 및 인바운드 소비의 확대 등이 호재가 되어 3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3월은 일본은행에 의한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및 장단금리조작(YCC) 철폐 등 금융정책 정상화가 시작되었다. 국내경기는 인바운드 소비가 활발해짐과 더불어 국내 관광산업도 호조였다.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인 소비 관련이 상향한 한편 일부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장 재개 및 호쿠리쿠 신칸센 연장 등은 지역경제를 상승시켰다. 한편 기상악화로 인한 봄 상품 수요의 보류는 경기를 하락시켰다. 또한 물가고와 함께 사입단가 상승의 재가속이나 불충분한 가격전가 등으로 인한 기업수익으로의 영향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다.

### < 향후의 전망 : 완만히 회복 >

향후는 금융정책에 있어 금리인상 시기 및 규모 등이 주목된다. 또한 임금인상 및 보너스 증가, 감세 등으로 인한 개인소비 행방이 경기회복의 열쇠가 될 것이다. 플러스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실질임금 상승 및 인바운드 수요의 확대, 생성형 AI의 발전·보급에 따라 생산성을 향상시킬 설비투자의 실행을 들 수 있다. 한편 인력부족 및 2024년 문제에 대한 대책, 환율 및 해외경제 동향 등은 주시가 필요하다. 향후의 경기는 금리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가운데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예측 DI는 ARIMA 모델과 구조방정식 모델의 결과를 Forecast Combination 수법으로 산출. 점선은 예측치의 폭(예측구간)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별 : 10개 업계 중 8개 업계에서 개선, 신년도를 앞두고 개인소비가 경기를 상승시켜**

• 인바운드 수요 외에 봄방학을 맞아 「료칸·호텔」 등 개인소비관련 업종이 상향하여 10개 업계 중 8개 업계가 개선되었다. 또한 졸업 및 이동 등 신년도를 맞아 계절수요도 상승세의 요인이었다. 한편 금리 인상 및 사업단가의 고조 등을 불안해하는 목소리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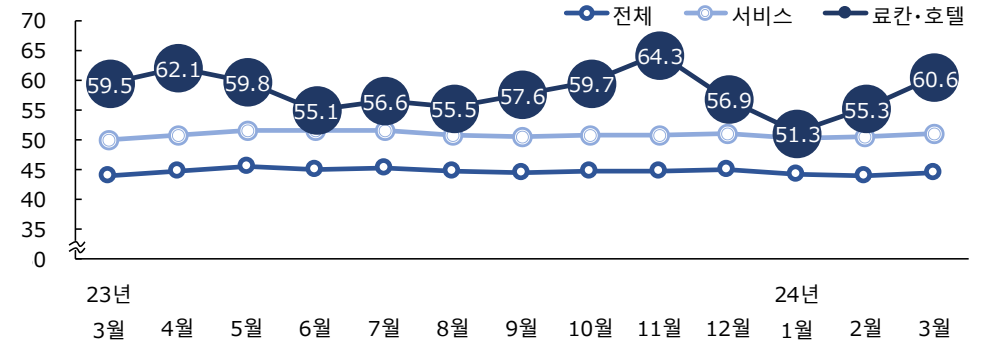
• **「서비스」 (51.0)** ...전월 대비 0.6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좀처럼 내려가지 않는 인바운드 수요나, 봄방학을 맞은 「료칸·호텔」(동 5.3포인트 증가)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송별회 등 모임이 늘어나는 가운데 「음식점」(동 3.3포인트 증가)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또한 인파 증가와 함께 「오락서비스」(동 0.9포인트 증가)나 성수기를 맞은 자동차교습소 등을 포함하는 「교육서비스」(동 3.2포인트 증가)도 3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전문서비스」(동 1.0포인트 증가)는 경영 컨설팅 등이 상향하여 3개월 연속 개선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보이스 등 제도 개정에 따라 수요에 안정이 나타난 「정보서비스」(동 0.4포인트 감소)는 50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부동산」 (49.3)** ...동 1.0포인트 증가. 3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역세권 물건을 중심으로 판매상황이 호조」(건물매매)등 도시부를 중심으로 견조한 부동산 니즈가 상승세 요인이 되었다. 게다가 3월부터 4월에 걸친 이동 및 신생활의 영향으로 주택수요가 고조되고 있다. 한편 신축 물건의 고액화 및 마이너스 금리 해제로 인한 주택대출금리 상승을 위구하는 등 소비자의 구매 의욕의 행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

• **「도매」 (41.4)** ...동 0.5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외식산업의 매출고 증가와 함께 고객으로부터의 주문도 증가」(주류도매)와 같은 「음식료품도매」(동 0.8포인트 증가)는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기계·기구도매」(동 0.1포인트 증가)는 3개월 만에 개선, 「새로운 종이화폐 발행에 따른 제품 갱신 등이 피크를 맞이하고 있다」(사무용 기계기구도매)등 특수를 받아들이는 기업이 보였다. 게다가 신년도를 앞두고 「지류·문구·서적도매」(동 1.9포인트 증가)도 3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한편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재생자원도매」(동 1.8포인트 감소)는 3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 **「제조」 (40.2)** ...동 0.4포인트 증가.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외식산업의 안정이 플러스 요인이 되어 「음식료품·사료제조」(동 1.4포인트 증가)는 3개월 만에 개선되어 과거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용 플라스틱 착색제 등의 수요가 호조」(플라스틱성형재료 제조)와 같은 목소리가 있는 「화학품제조」(동 1.3포인트 증가)는 2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또한 여전히 영향은 있으나 대형 자동차 제조업체의 공장 재개 등 「수송용기계·기구제조」(동 2.3포인트 증가)는 4개월 만에 상향하였다. 한편 고객층에서 재고가 쌓여 수주량이 둔화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다수 들려온 「전기기계제조」(동 1.1포인트 감소)는 2개월 연속 악화되었다.

업계·업종별 지표



순위	업종명	경기DI	순위	업종명	경기DI
1	료칸·호텔	60.6	11	오락서비스	47.2
2	정보서비스	55.3	12	건설	47.0
3	전기통신	54.2	13	메인テナンス·경비·검사	46.7
4	전문서비스	52.4	14	교육서비스	46.3
5	리스·임대	51.7	15	가전·정보기기소매	45.8
6	음식점	51.3	16	정밀기계, 의료기계·기구제조	45.5
7	인재파견·소개	49.8	16	광고관련	45.5
8	부동산	49.3	18	음식료품소매	45.3
9	금융	49.2	19	음식료품·사료제조	44.8
10	방송	47.4	20	의료·복지·보건위생	44.7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 1월	2월	3월	전월 대비
농·임·수산	41.6	42.2	44.8	46.7	42.5	43.0	42.1	43.0	40.1	40.5	40.3	41.2	42.4	1.2
금융	44.0	45.0	47.8	48.1	47.4	48.8	46.8	47.3	48.0	47.0	47.7	47.7	49.2	1.5
건설	45.5	45.6	46.9	46.8	47.8	47.4	47.1	47.5	47.8	47.2	47.7	47.5	47.0	▲ 0.5
부동산	47.5	49.6	50.7	50.3	48.8	49.6	48.5	48.7	47.9	47.5	48.1	48.3	49.3	1.0
제조	41.0	41.4	41.5	41.3	41.5	41.2	40.8	41.1	41.6	41.5	40.4	39.8	40.2	0.4
도매	41.9	42.9	43.7	42.5	42.9	42.3	41.9	41.7	42.1	42.7	41.6	40.9	41.4	0.5
소매	40.6	42.5	42.4	42.0	41.9	41.8	41.4	41.9	41.2	41.5	40.8	40.6	41.4	0.8
운수·창고	41.2	42.1	43.4	42.2	43.5	43.3	42.8	44.1	43.8	44.5	43.5	41.9	43.1	1.2
서비스	50.0	50.8	51.6	51.6	51.7	50.8	50.4	50.8	50.8	50.9	50.2	50.4	51.0	0.6
기타	38.2	39.2	41.2	39.8	40.9	40.8	39.2	40.1	38.2	42.8	41.3	41.2	41.1	▲ 0.1
격차(10개 업계별 '기타'제외)	9.4	9.4	10.1	10.3	10.2	9.6	9.6	9.7	10.7	10.4	9.9	10.6	10.8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 규모별 : 5개월 만에 전규모가 개선, 「중소기업」은 음식료품 관련이 상승

- 「대기업」 「중소기업」 「소규모기업」이 5개월 만에 모두 개선되었다. 주가 상승이 투자에 플러스 요인이 된 한편 인바운드 및 여행·이사 관련도 상승세 요인이었다.
- 「대기업」 (48.0) ...전월 대비 0.3포인트 증가. 4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금융』은 「신NISA」나 주가상승 등에서 펀드 판매가 호조」도 있어 2개월 연속 상향하였다. 『서비스』에서는 인바운드 소비 및 교육 서비스가 상승하였다. 한편 『부동산』은 3개월 만에 하락하였다.
- 「중소기업」 (43.8) ...동 0.6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설비투자가 왕성」 「이벤트 및 백화점 등에서 인파가 많아졌다」는 목소리도 있어 생산·소비의 양면이 상향하였다. 음식료품 관련에서는 「고객수, 고객단가 모두 증가」 등, 제조·소매·음식점이 호조였다.
- 「소규모기업」 (42.9) ...동 0.5 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인바운드 소비 등 여행 관련이 견조하였다. 이사 시즌으로 가전 및 가구류의 판매가 뒷받침하며 임대주택 계약이 플러스 요인이 되는 등 『부동산』이 상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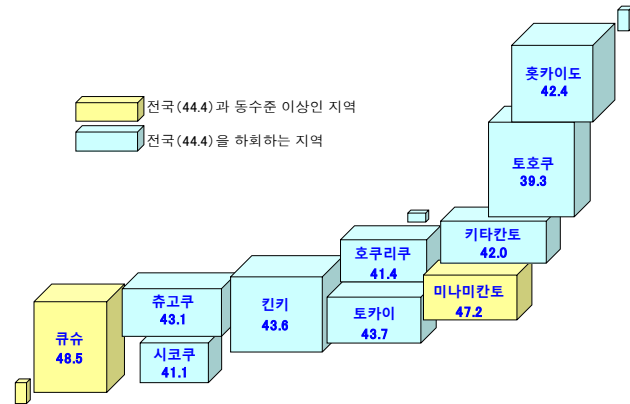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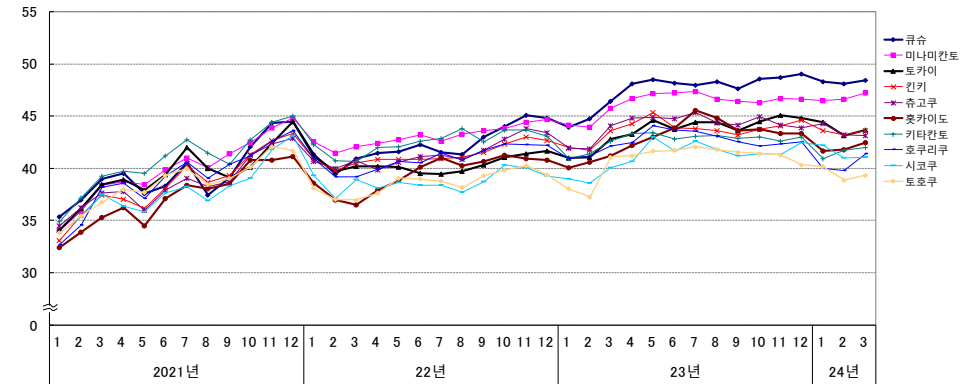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12월	2월	3월	전월 대비
대기업	46.1	47.3	48.1	47.7	48.6	48.0	47.8	47.9	48.4	48.1	47.9	47.7	48.0	0.3
중소기업	43.5	44.2	44.9	44.5	44.6	44.3	43.8	44.1	44.2	44.3	43.6	43.2	43.8	0.6
(그중 소규모기업)	42.4	42.9	43.9	43.6	43.4	43.5	43.0	43.4	43.1	43.3	42.6	42.4	42.9	0.5
격차(대기업-중소기업)	2.6	3.1	3.2	3.2	4.0	3.7	4.0	3.8	4.2	3.8	4.3	4.5	4.2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

### 지역별 :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각지의 관광산업이 호조

- 『호쿠리쿠』 『미나미칸토』 『토호쿠』 등 10개 지역 중 9개 지역이 개선, 1개 지역이 악화로 나타났다. 29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이 개선되었다. 노토반도지진의 복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각지의 여행·관광산업이 호조였다. 한편 재해지역으로부터의 부품 공급 지연이나 봄 상품 수요의 연기 등이 하락세 요인이었다.
- 「호쿠리쿠」 (41.4) ...전월 대비 1.6포인트 증가. 3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지역 내 4현(県)이 1년 5개월 만에 모두 상향하였다. 지진 전의 수준으로는 돌아간 것은 아니나 「호쿠리쿠 신칸센의 연장」 「노토반도지진의 재해복구공사」 「호쿠리쿠 응원 할인의 효과」 등의 목소리가 많아 플러스 요인이 많이 나타났다.
- 「미나미칸토」 (47.2) ...동 0.6포인트 증가. 2개월 연속 개선되었다. 지역 내 「치바(千葉)」 「사이타마(埼玉)」 「도쿄(東京)」가 개선, 「카나가와(神奈川)」가 보합으로 나타났다. 여행업계에서 고객이 회복경향인 가운데 관광과 관련된 체감경기가 상향하였다. 한편 봄 상품 수요가 연기된 어패럴 등 『소매』는 저조하였다.
- 「토호쿠」 (39.3) ...동 0.5포인트 증가. 8개월 만에 개선되었다. 지역 내 6개 현(県)중 4개 현이 개선, 2개 현이 악화되었다. 외출 기회 증가와 함께 지역 할인 등으로 인한 관광 기념품 구입 등이 호재였다. 한편 적은 강설(降雪) 및 주택착공호수, 부품 공급부족 등이 하락세 요인이 되었다.

지역별 그래프(2021년 1월부터의 월별추이)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4년12월	2월	3월	전월 대비
홋카이도	41.2	42.2	43.0	43.9	45.6	44.8	43.6	43.7	43.3	43.3	41.6	41.8	42.4	0.6
토호쿠	41.1	41.2	41.6	41.7	42.1	41.8	41.5	41.4	41.3	40.3	40.2	38.8	39.3	0.5
키타칸토	42.6	43.3	43.4	42.8	43.1	43.1	42.9	43.0	42.6	43.0	40.9	41.7	42.0	0.3
미나미칸토	45.7	46.7	47.2	47.2	47.4	46.6	46.4	46.3	46.7	46.6	46.5	46.6	47.2	0.6
호쿠리쿠	42.1	42.5	44.0	43.7	43.6	43.1	42.5	42.1	42.3	42.5	40.0	39.8	41.4	1.6
도카이	42.8	43.3	44.6	43.8	44.4	44.4	43.6	44.4	45.1	44.8	44.4	43.1	43.7	0.6
킨키	43.6	44.3	45.4	43.9	43.8	43.6	43.2	43.7	44.1	44.6	43.6	43.2	43.6	0.4
츄고쿠	44.1	44.8	44.9	44.7	45.3	44.3	44.1	44.9	44.2	43.9	44.3	43.2	43.1	▲ 0.1
시코쿠	40.0	40.7	43.0	41.7	42.6	41.8	41.2	41.4	41.3	42.5	42.2	41.0	41.1	0.1
큐슈	46.4	48.1	48.5	48.2	48.0	48.3	47.7	48.6	48.7	49.0	48.3	48.1	48.5	0.4
격차	6.4	7.4	6.9	6.5	5.9	6.5	6.5	7.2	7.4	8.7	8.3	9.3	9.2	

※색이 없는 부분은 전월 대비 개선 또는 증가, 황색은 전월 대비 보합, 청색은 전월 대비 악화 또는 감소를 나타냄